



“산사나이들의 소중한 경험, 시민사회와 나눌 것”

광주·전남히말라얀클럽 윤장현 회장 추대

“죽음까지도 함께 할 수 있는, ‘생명의 태극’을 함께 묶고 동행해온 회원들의 소중한 경험을 시민사회와 함께 나눌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광주·전남히말라얀클럽은 지난 4일 ‘2012년 정기총회’를 열어 제3대 회장에 윤장현(63) 아이안과원장을 회원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윤 회장은 “오랜만에 친정집에 돌아온 느낌”이라며 “히말라야 원정은 재물이나 명예를 구하지 않고 자신의 생명까지 거는 ‘무상의 행위’라는 점에서 다른 분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숭고함을 지녔다”고 밝혔다. 그는 “회원을 모두가 인간 승리의 경이로운 대상이라는 점에서 언제 어디서나 담당할 자격이 있다”며 “그들과 함께 부대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저에게 영광”이라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이어 “그 담당함에 걸맞게 역경과

고난을 헤쳐온 수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의 젊은이들을 글로벌 리더로 키워내는데 역할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산악운동 발전을 위한 포럼이나 원로회원과 함께 하는 히말라야 트레킹 등도 시도해볼 요량이다.

지역 산악운동의 선구자적 역할을 했던 산악회 ‘바자울’ 출신으로 1990년 광주남가파르밧원정대 부대장, 1992년 에베레스트원정대 단장, 1995년 실크로드탐사대 단장 등을 맡아 광주·전남지역 해외 원정등반에 힘을 보탰다. 이후에도 ‘열 손가락 없는 산악인’ 김홍빈씨의 세계 7대륙 최고봉 등정과 히말라야 원정의 단장을 맡는 등 후배 산악인들을 지속적으로 후원해왔다.

또한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부위원장, 광주·전남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광주시민연대 대표, 아시아인권위원회 이사, 아



광주·전남히말라얀클럽 회원들이 지난 4일 광주시 중앙동 베네치아에서 ‘2012년 정기총회’를 열어 새 임원진을 구성한 뒤 활발한 활동을 다짐하고 있다.

름다운가게 대표, 우리민족서로돕기 공동대표, 광주YMCA 이사장, 한국YMCA전국연맹 이사장 등을 역임하며 한국 시민운동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광주·전남히말라얀클럽은 히말라야 등반과 해외 오지탐사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 지역 산

악인들을 중심으로 지난 2006년 출범했으며 ▲히말라야 학술조사 ▲해외 고산원정 및 오지탐험 ▲우수 산악인 발굴 및 지도자 양성 지원 등의 활동을 펴고 있다. 현재 100여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글·사진=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농어촌공 광주지사 내고향 지킴이 정기총회



“모두가 꿈꾸는 농촌, 우리가 만듭니다!” “지킴이 내고향 지킴이 지역총회 및 국토대청결운동(환경정화)”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지사장 조성평)는 최근 내고향 지킴이 정기총회를 갖고 왕동지구 저수지독유이기 사업현장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벌였다.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 제공>

청소년가족복지상담협회 ‘청복봉사단’ 발대



(사)청소년가족복지상담협회는 지난 4일 CMB방송국 2층 문화원에서 ‘청복봉사단’ (단장·백현욱 송원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발대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담양군 추남동우회 장학금 100만원 기탁



담양군 추남동우회(회장 신동호)는 최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재)담양 장학회에 장학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담양군 제공>

강동준 순천공고 총동문회장 취임 축하쌀 기탁



강동준 순천공고 총동문회장은 최근 회장 취임 축하회한 대신 기증받은 쌀 10kg 155포(350여만원 상당)를 순천시에 기탁했다. <동부취재본부=예정열기자 jjj@kwangju.co.kr>

장흥지역 자활센터 영어발표 대회



장흥지역 자활센터(센터장 위수미)는 최근 이주여성 영어강사 및 대상 초등학교 어린이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영어발표 대회를 개최했다. <장흥지역 자활센터 제공>

화순군청 유병규 과장 녹조근정훈장



화순군 전락산업과 유병규 과장이 최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주관의 제4회 ‘섬김이 대상’에서 녹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유 과장은 군정발전 기획단장과 전락산업과장으로 재임하면서 전국최초로 ‘백신산업 특구’를 지식경제부로부터 지정받았고, 독일 프라운 호퍼 IME 유체에 심혈을 기울이는 등 화순군 바이오 메디칼 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한편 ‘섬김이 대상’은 지난 2008년부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투자유치,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에 기여한 관계자를 발굴해 시상, 공직사회에 국민을 섬기는 분위기를 확산 도모를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중부취재본부=조성수기자 css@

인사

- ◆식품의약품안전청 ▲광주지방청 고객지원과장 김명호



“진정한 부자는 더 갖는게 아닌 나누는 것”

장애인에 헌신 사랑 베푸는 지체장애인 목포 양한옥씨

인생 역경을 한편의 휴먼 드라마 같은 이웃사랑으로 극복해 낸 사연이 목포시민들 사이에서 회자되면서 심금을 울리고 있다.

사연의 주인공은 목포시 만호동에 사는 양한옥(61)씨. 점차 양해 자신도 오른 팔이 없는 지체장애인이면서 자신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 헌신적인 사랑을 펼쳐 감동을 주고 있는 것.

그는 매일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박스와 빈 병 등 폐품을 수집해 생계를 꾸린다.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모은 돈 500만원. 이 거금을 전남 장애인자원봉사센터와 목포시 지체장애인협회에 쾌척했다.

또 틈나는 대로 활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우

가정을 찾아다니며 백미·라면·과일·가스레인지·선동기 등 필요한 생활필수품을 전달하기도 한다. 이웃사랑이 생활 그 자체인 셈이다. 요즘은 지체장애인협회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그곳에서 받은 수당도 정기적으로 기부한다.

무엇보다 양씨는 가족이 없는 혈혈단신이다. 살림도 녹록할 리 없다. 세계 식사만 겨우 때울 정도로 사는 것이 힘들다.

안강방 어선의 선원이었던 그는 10년 전 그물을 끌어올리는 불러에 팔이 떨어 들어가는 불의의 사고로 오른 팔을 잃었다. 잠시 방황도 했지만 자신보다 더 못한 사람들을 돌보라는 또 다른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그 때부터 이웃사랑에 눈을 떴다고 한다.

“자기가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것이 부자가

아니라 나누는 것이 진정한 부자”라는 게 양씨의 신념이다. “6살 때부터 장물뱅이처럼 굴러다니다보니 배고픈 설움을 누구보다 잘 안다”는 그는 “남에게 베풀면서 사는 게 자신의 유일한 즐거움”이라고 말한다.

양씨의 선행을 세상에 알린 김한아 씨(만호동사무소 근무)는 “아무리 가진 게 없어도 나눌 것은 있다는 말이 존재하는 이유를 알게 됐다”면서 “각박한 세상이라고 하지만 그 분 같은 천사가 있어 세상은 아직도 살만할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한편, 이 같은 선행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양씨는 최근 ‘목포시 동 주민과의 대화’에서 ‘자랑스러운 동민’에 선정돼 시장표창을 받았다.

/서부취재본부=고규석기자 yousou@

디케이산업 김보곤 회장 동신대에 2억 기부

광주 디케이산업(주) 김보곤 회장이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씨달라며 동신대학교에 2억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했다.

김 회장은 지난 3일 오전 동신대와 디케이산업(주) 간의 산학협력협정 체결을 위해 동신대학교를 방문, 협정체결에 앞서 김필식 총장에게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김 회장은 광주 평동공단내 프레스 가공업체인 디케이산업(주) 설립자이자 대표이사로서, 지난 1993년 기술자 5명과 자본금 3000만원으로 회사를 설립해 현재 근로자 250명, 연



매출액 700억원, 수출실적 4000만달러 규모의 탄탄한 기업으로 눈부신 성장을 이뤄낸 글자의 기업이다. /채희중기자 chae@

광주·전남 헌병 전우회 박종호 회장 취임

광주·전남 헌병 전우회 회장 이취임식이 지난 4일 오후 광주시 북구 매곡동 샤롯데 문화관에서 전국 각 지역 전우회 관계자와 회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4대 회장에 취임한 박종호씨는 취임사에서 “지난 2006년 창립된 이후 광주·전남 헌병 전우회 회원들은 꾸준히 지역 내에서 모범적인 활동을 보여왔다”며 “회원 간 친목도모와 지역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400여명의 광주·전남 헌병전우회는 그들



안 전국체전, 장애인체전, 도민체전, 각종 마라톤대회 등 지역행사의 자원봉사에 나서 호평을 받았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생활게시판

화측

▲이우조(광주 미즈피아병원장)·손정혜씨 장남 용욱군 김찬영·조계순씨 장녀 진아양=3월 1일(목) 낮 1시 서울 강남구 논현동 호텔 리즈칼튼 3층 그랜드볼룸, 신랑측 피로연 11일(토) 오후 6시 30분 광주 상무지구 라마다플라자호텔 5층 대연회장.

동창·동문회

▲목포고 제5회 동창회(회장 허준성) 월례회=6일(월) 오후 6시 금강산식당 062-224-0808.

중친회

▲동래정씨 광주전남 중친회(회

장 정현영) 신년하례회 및 이사회회 =10일(금) 오전 11시 30분 무등고 시화원 011-9615-8567.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민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전의경회(경우회 특별회)=전 의경 전역자들의 모임회 창립 019-277-0007.

▲광주 여성의 전화 무료 상담 및 법률·의료비 지원=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직장내 성차별, 이주여성 문제. 상담 062-363-0442~3.

▲광주종합사회복지관 아동가족 상담센터 무료상담=아동심리적 발달·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미술치료, 언어치료, 자녀양육상담 062-264-4370, 5308.

▲오치종합사회복지관 이주여성 한국사회 적응력 향상 무료 교육=요가, 웃음교육, 푸드아트테라피, 매주 월·수요일 오전, 선착순 20명. 062-267-3700.

▲자비선원 명상 무료 지도=학폭력, 주부, 직장인, 마음의 평화를 원하시는 분 062-228-7701.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장애차별 상담=국민 없이 1331, 우편 방문·광주시 동구 제봉로 광주은행 본점 6층.

▲한국실버복지회 생활법을 무료 상담=내용증명, 고소장, 호적정리, 가정 고민, 실버 결혼, 이발, 주례 서주기, 묘자리 바꾸기 등(실버에 한

함) 062-365-8228.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영아일시보호소 무료 상담=보호가 필요한 아동 일시보호 상담. 국내 입양 상담. 미혼모 상담 및 시설 입소 안내 062-222-1095.

▲비둘기 가정상담소 무료 상담=인터넷 및 전화 상담. 방문 상담은 예약제. 062-652-1366, 062-434-1366 www.gene-korea.com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법률상담=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국번없이 132. 무료 법률 상담 및 법률구조. 면접 상담은 광주지부 검찰청 민원실 2층.

모집

▲광주대 풍수지리학 무료 강좌=25일(토) 오후 2시~5시 광주대 호심기념 도서관 5층(1) 양택, 음택·수택, 나경·입향론, 비결투명당, 장법요강 등 이론과 현상 영상 강의(책자무료제공) 010-3609-8117, 062-670-2161.

▲제주 소망 필법수강생=초대자

가 이관주. 문은주 정형외과 4층 010-2982-5124.

▲2012학년도 광주노인지도자대학 26기생=심신이 건강하고 수업에 지장없는 65세 이상 남녀 선착순 60명 모집(무료). 29일(월)까지 입학원서·증명사진·주민등록증 사본 제출. 사단법인 대안노인회 광주시연합회 062-652-7374.

▲핀즈공예전문학원은 각종 도자기, 갑, 접시, 공기그릇, 대접, 핸드페인팅, 포셀린페인팅, 세라믹페인팅, 포크아트, 체험학습, 취미반, 창업반, 전문가 과정 수시모집. 062-251-5559, 010-2665-6440.

▲외국어전문봉사단은 광주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 등의 봉사활동으로 외국인과 회화가 가능한 분, 영어 일어 중국어 불어 독일어 및 기타 외국어. 광주시자원봉사센터 062-613-5584.

▲심청재가 장기요양기관=장기요양 신청 및 등급 판정 수시상담. 고령, 노인성 질환(치매·중증·노환), 청소, 취사, 가사지원, 신체활동지원, 방문목욕(차량목욕), 돌봄서

비스 등 대상자 및 요양번호사 모집. 야간 및 휴일 상담. 062-264-7748, 018-690-5356.

부음

▲이오순씨 별세 김중근·영희씨

모친상=발인 7일(화) 무등장례식장 202호 062-515-4488.

▲정기엽씨 별세 양진 정남·영화·경화·은희·은옥씨 부친상=발인 7일(화) 무등장례식장 203호 062-515-4488.

故 조철현 님(남/63세) 子/子婦: 조정수 / 박유미, 정호 / 정현희 / 정현희 女/妻: 조정희 / 정현희 •호실101호 •장지:영락공원	발인: 2월 6일 •발인: 2월 6일 •연락처: 227-4385
故 김남희 님(女/53세) 子: 고순철, 순섭 •호실102호 •장지:영락공원	발인: 2월 6일 •발인: 2월 6일 •연락처: 227-4386
故 서계찬 님(남/80세) 子/子婦: 서길성, 길수 / 박경자 女/妻: 서순연 / 윤두원, 순옥 / 조종천 미령 / 신인문, 혜연 •호실301호 •장지:안도당	발인: 2월 6일 •발인: 2월 6일 •연락처: 227-4382
故 김봉금 님(女/90세) 子/子婦: 김봉남 / 김경희, 종철 / 김순덕 女/妻: 박유미 / 이동영 •호실401호 •장지:담양천주교	발인: 2월 6일 •발인: 2월 6일 •연락처: 227-4383
故 김병준 님(남/69세) 子/子婦: 김병준 / 정은옥, 종석 / 김은정 女: 김정숙 •호실402호 •장지:영락공원	발인: 2월 6일 •발인: 2월 6일 •연락처: 227-4314

마음까지 편안함 **孝 금호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 문의 (062)227-4000